

〈안빙몽유록〉 속 화원왕국과 모란의 성격 재고

남혜경*

〈차 례〉

1. 들어가며
2. 〈안빙몽유록〉의 구도
3. 화원왕국의 긍정적 성격
 - 1) 임금의 은혜를 상징하는 봄날
 - 2) 이부인과 반회의 절개
 - 3) 예의와 법도에 따른 자리 배치
4. 신광한의 분신으로서의 모란
5. 나가며

〈국문초록〉

이 논문은 신광한의 〈안빙몽유록〉과 그의 문집 『기재집』, 『태평광기』 소재 〈최현미〉 등 인접 텍스트들을 견주어 봄으로써 〈안빙몽유록〉의 주제를 재고하기 위한 연구이다. 기존 논의에서는 〈안빙몽유록〉의 배경인 화원왕국을 타락한 공간으로 간주하며 여성인물군과 남성인물군 사이에 대립구도가 나타난다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본 작품에 대립구도가 있다면 그것은 『태평광기』 소재 〈최현미〉에서처럼 식물들과 비바람 사이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의인화된 식물들이 짓는 시들이 〈최현미〉에서처럼 비바람에 관련된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신광한의 문집 『기재집』에서는 봄날이 부패의 공간이 아닌 임금의 은혜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는 화원왕국의 여성 인물들처럼 꽃이 떨어지고 몸이 늙어가는 것을 아쉬워하는 시를 다수 남기기도 했다. 『기재집』의 첫 번째 시인 〈화이소경〉의 화자는 마치 〈안빙몽유록〉의 모란처럼 자기 자신을 꾸미며 예의와 법도를 지켰으나 임금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장년이 지나 죽는다. 즉 화원왕국과 모란의 형상에는 신광한 자신의 삶의 태도가 투영되어 있으며, 이는 유배 중에 임금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과 떨어져 있어도 자신만의 신념과 세계를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안빙몽유록〉 연구에서 지금까지 다소 소홀히 주목되었던 신광환의 『기재집』을 주요 참고 자료로 삼았다는 것이다. 저자의 평소의 가치관이 가감 없이 드러난 문집을 통해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찬 화원왕국의 진상에 더 정확히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재집, 안빙몽유록, 화원왕국, 모란, 최현미, 신광환

1. 들어가며

〈안빙몽유록〉의 화원왕국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여성인물들이 주축이 된 화원왕국을 타락한 유희자의 세계로 보는 관점이다. 최승범(1984)¹⁾은 〈안빙몽유록〉의 주제를 선비로서의 몸가짐과 독서 정진의 권장으로 보았다. 그는 화원왕국은 ‘사람’이 빠지기 쉬운 노래, 춤, 여색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선비는 수양을 위해 울타리 안에 눈을 어지럽히는 꽃도 멀리하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육홍타(2003)에게서도 보인다. 그는 남자 그룹은 고고한 선비그룹을, 여자 그룹은 타락한 관료들 상징한다고 보았으며 〈안빙몽유록〉에서 매혹적인 여성들이 남자들을 유혹하고자 하는 것은 타락한 정계에서 지조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이 끊임없이 타락에의 유혹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신범순(2000)²⁾은 하나의 평범한 아녀자로서의 모란 여왕이 유가적 상징의 굳은 틀과 높은 이념들을 무너뜨리고 안빙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한다고 보았다.

1) 최승범, 「〈안빙몽유록〉에 대하여」, 國語文學, 全北大學校 國語國文學會, 1984, 125~145쪽.

2) 신범순, 「은자의 정원에 나타난 상징과 꿈의 의미 -〈안빙몽유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2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0, 75~107쪽.

신해진(1997)³⁾은 화원왕국의 인물간 대립에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화원왕국에서 식물들이 좌정하는 대목에서는 벼슬, 주객, 가속의 관계 등이 일관되지 않게 고려되었으며 이는 권도가 횡행한 세태를 나타낸다. 또 모란 여왕이 고상하고 절묘한 남훈곡을 장려하고자 했지만 결국 비속한 음악이 울려 퍼지는 것은, 화원왕국이 기강과 체통이 제대로 서지 않아 인심을 바로잡을 수 없는 왕국이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한다. 모란 여왕이 여성 신하에게 하사한 금전두는 여왕의 일관되지 못한 부도덕성을 나타내며, 이로 인한 조래선생의 퇴장은 아침이 기승을 부리는 곳에서는 선비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신해진의 시각은 많은 연구자들⁴⁾에게 영향을 주었다.

윤채근(1999)⁵⁾, 유정일(2002)⁶⁾, 최재우(2007)⁷⁾은 화원세계의 갈등을 훈구와 사림의 갈등으로 독해했다. 윤채근은 훈구를 상징하는 모란이 연정시를 짓는 순간 왕으로서의 권위가 완전히 실추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광한의 처사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훈구와 사림의 중간자로서의 신광한의 자아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유정일은 훈구 세력의 의

-
- 3) 신해진, 「〈안빙몽유록(安憑夢遊錄)〉의 주제의식 고찰 : 작가의 의식성향 및 정치적 입장과 관련하여」, 『韓國漢文學研究』 20, 한국한문학회, 1997, 211~243쪽.
- 4) 김형석, 「夢遊錄類 小說 作家의 現實認識 研究 : 朝鮮 中基 作品을 中心으로」, 충남대학교 석사논문, 2003, 1~81쪽. 신상필, 「『기재기이(企齋記異)』의 성격과 위상」, 『민족문학사연구』 24, 민족문학사학회, 2004, 188~215쪽. 김미령, 「(몽유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 환상성 연구」, 문학들, 2010. 양혜승, 「〈안빙몽유록〉(安憑夢遊錄)에 나타난 도가적 사유와 의미지향」, 『문학과종교』 24, 한국문학과종교학회, 2019, 71~95쪽.
- 5) 윤채근, 「『기재기이(企齋記異)』: 우의의 소설미학」, 『韓國漢文學研究』 24, 한국한문학회, 1999, 159~187쪽.
- 6) 유정일, 「『企齋記異』의 傳奇小說史의 特性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2002, 1~196쪽.
- 7) 최재우, 「『企齋記異』의 장르적 특성과 형상화 의미」,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7, 1~187쪽.

미하는 회원왕국은 시기, 질투, 갈등, 무상한 정치 권력으로 차 있다고 분석하였다. 최재우는 훈구를 상징하는 여성 인물군은 외면의 화려함과 경박한 행동, 외로운 정서로 일관되어 있고 사람을 상징하는 처사군은 이와 대비되는 충실한 내면적 가치를 보여준다고 보았다. 권도경(2000)⁸⁾, 신태수(2004)⁹⁾, 엄기영(2007)¹⁰⁾, 김현화(2014)¹¹⁾는 여성인물들과 남성인물 간의 갈등이 조율되지 않는 것을 통해 〈안빙몽유록〉에 소통의 부재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회원왕국 속 여성인물들의 성격은 대개 선비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대립되어 부정해야 할 것으로 독해되었다. 단 유기옥(1990)¹²⁾과 문범두(2003)¹³⁾는 〈안빙몽유록〉이 작자가 은거하는 상황에서 지어진 것을 고려하여 처사군 인물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들에게도 신광한의 자아가 반영되어 있다고 하였다. 예컨대 유기옥은 모란을 위시한 여성인물들이 과거 회상적인 시를 짓는 것은 신광한 본인이 벼슬길에 있었던 때를 회상하는 정서와 통하고, 남훈곡을 읊는 것은 은거한 상태에서 이상적인 통치를 생각하는 것으로 보았다. 문범두는 여성형 인물들이 고독을 극복하고 재합을 이루는 세계를 추구하는 것은 은거했던 선비가 왕도정치가 구현되는 치세의 문명시대에 다시 조정으로 나아가려는 사대부적 출처관의 일단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모두 남성 인물들은 자신의 이상과 맞지 않는 조정에 나아가려는 의지가 없다고 하였다.

8) 권도경, 「16세기 『기재기이』의 전기소설사적 의의 연구 : 현실성의 확대와 주체의 의지강화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6, 한국고전연구학회, 2000, 33~58쪽.

9) 신태수, 「『기재기이』의 환상성과 교환 기능성의 수용 방향」, 『고소설연구』 17, 한국고소설학회, 2004, 133~164쪽.

10) 엄기영, 「『企齋記異』의 창작방법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7, 1~141쪽.

11) 김현화, 「〈안빙몽유록〉 구성 방식의 특질과 소설적 기능」, 『어문연구』 79, 어문연구학회, 2014, 141~167쪽.

12) 유기옥, 「申光漢의 『企齋記異』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논문, 1990, 1~168쪽.

13) 문범두, 「〈안빙몽유록〉 주재고」, 『어문학』 80, 2003, 239~264쪽.

본고는 유기옥과 문범두의 관점을 수용하되 선행 연구에서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졌던 〈최현미(崔玄微)〉와 『기재집』 등 인접 텍스트들의 내용을 인용하며 그 근거를 확충하려고 한다. 태평광기 소재 〈최현미〉는 안빙몽유록과 서사의 전반적인 구도가 일치한다. 〈최현미〉와 〈안빙몽유록〉을 견주어 봄으로써 〈안빙몽유록〉에서도 〈최현미〉와 같이 비바람과 꽃들의 대립 구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안빙몽유록〉의 대립구조는 여성인물과 남성인물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극복해야 할 대상은 모란 여왕이 아니었던 것이다. 『기재집』은 신광한의 문집으로 이를 통해 신광한의 평소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기재집』에서는 그동안 사치, 향락 및 아부로 독해되어 통렬한 비판을 받았던 화원왕국 속 여성 인물들의 발화가 신광한 자신이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하는 ‘연군지정’의 맥락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확인된다. 또 『기재집』의 첫 작품인 〈화이소경〉의 화자와 〈안빙몽유록〉의 모란은 그 행보에 상당 부분의 유사성이 나타난다. 신광한은 〈안빙몽유록〉을 통해 ‘화원왕국으로 대표되는 부패한 조정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유배된 선비가 자신의 세상을 지키는 방법’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다.

〈안빙몽유록〉은 특유의 몽환적 분위기와 해석의 난해성으로 지금까지도 수많은 독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안빙몽유록〉과 그 인접 텍스트를 비교한 본 연구가 〈안빙몽유록〉의 비유체계의 진상에 다가가는 것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 〈안빙몽유록〉의 구도

아래 표는 복송 초(977) 간행된 『태평광기』 권10에 수록된 〈최현미(崔玄微)〉와 신광한의 〈안빙몽유록〉의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¹⁴⁾ 두 작품은

몽유자가 청의동자에게 이끌려 꽃들의 시회에 참석한다는 것, 좌장이 상석에 앉고 몽유자가 손님 자격으로 두 번째 자리에 앉는다는 것, 참석자들이 비바람에 꽃이 지고 봄이 가는 것을 아쉬워하는 노래(시)를 지었다가 좌장이 이를 그만두게 하고 다른 노래(시)를 부르게 한다는 것, 연회에서 타협을 거부하고 연회장을 빠져나가는 인물이 있다는 것, 연회가 끝난 후 몽유자가 좌장을 비판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등 이야기의 전반적인 내용과 흐름이 일치한다.¹⁵⁾

『태평광기』 수록 <최현미>	<안빙몽유록>
<p>천보년간에 약초를 찾아서 종복들과 함께 산을 돌아다녔던 최현미는 집으로 돌아왔다. 어느 봄날, 최현미는 정원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청의인을 만난다. 청의인은 최현미에게 바람의 여신 봉실파이를 만나러 가는 자신들을 위해 집을 빌려줄 것을 요청한다. 청의인은 최현미에게 의인화된 일행들을 각각 양씨, 이씨, 도씨, 석아조 등으로 소개한다. 며칠씩 기다려도 오지 않던 봉실파이가 드디어 일행들의 앞에 등장하고, 자리가 어수선한 상태에서 꽃들의 연회가 시작된다.</p>	<p>과거에 볼지 못한 선비 안빙은 남산 별채에 식물들을 심어 정원을 가꾸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어느 봄날, 안빙은 어느 날 정원에 있는 회나무 밑에서 낮잠을 자다가 꿈에서 호랑나비를 보고 이를 따라간다. 안빙은 자신을 알아보는 청의동자에게 이끌려 모란의 궁전으로 초대된다. 궁전에서 안빙은 여러 미인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자신의 성과 이름 그리고 내력을 소개했다. 여왕(모란)의 궁전에 여러 손님들이 모두 도착하여 예의에 맞게 착석한 후 연회가 시작되었다.</p>

14) <최현미>와 <안빙몽유록>의 유사성은 유기옥(1990), 엄기영(2007) 등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화왕계>, <남가태수전>, <가비(賈秘)>, <조사옹취계매화화(趙師雄醉憩梅花下)> 역시 <안빙몽유록>에 영향을 주었다는 견해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들 작품들은 <안빙몽유록>과 몽유와 식물 의인화 등의 이야기를 형성하는 발상이 비슷할 뿐 <최현미>나, <최현미>를 기반으로 한 <관원수만봉선녀(灌園叟晚逢仙女)>처럼 이야기의 세세한 흐름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15) <어우야담>에는 ‘우리나라의 문장 하는 선비들은 모두 『태평광기』를 공부하였다’는 구절이 나온다. 『태평광기』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1100년도에 한반도에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되며, 尹誦(1063~1154), 李奎報(1168~1241), 一然(1206~1289), 徐居正(1420~1488), 許筠(1551~1588) 및 수많은 지식인들의 글에서 『태평광기』의 수용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강민경, 「『태평광기(太平廣記)』의 국내 유입과 그 영향-유선시(遊仙詩)를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66, 동방한문학회, 2016, 309~343쪽.

<p>봉심팔이가 상석에 앉고 최현미가 두 번째 자리에 앉는다.</p>	<p>여왕(모란)이 상석에 앉고 안빙이 두 번째 자리에 앉는다.</p>
<p>연회가 시작되자 꽃들은 비바람에 꽃이 지며 봄이 가는 것을 아쉬워하는 노래를 짓는다. 이것이 자신을 겨냥하는 노래라는 것을 눈치챈 봉심팔이는 꽃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노래를 그만두게 하고 더 신나는 노래를 부르자고 한다.</p>	<p>금실웃 입은 기녀(버드나무), 깃털웃 입은 기녀(버들꽃)가 비바람에 꽃이 지고 봄이 가는 것을 아쉬워하는 노래를 불렀다. 모란이 이러한 노래를 멈추게 하며 남훈곡을 연주하게 하며 자신의 남편인 봄의 신과 헤어지게 된 시연을 토로한다. 우비(매화) 역시 남편과 떨어지게 된 슬픔을 이야기하는데, 안빙은 모란에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준 것을 감사하는 시를 짓는다.</p>
<p>술이 교환되는 중에 봉심팔이는 아조(석류)에게 술을 쏟는다. 그런데 석류는 자신이 하위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봉심팔이에게 구하는 것이 없으니 아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봉심팔이와 대화를 하지 않고 연회장을 나가 버린다.</p>	<p>반면 부용성주 주씨(연꽃)은 자신이 남편과 떨어지게 된 것은 사실이나 이제 자신은 연실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시를 지었다. 조래선생(소나무)은 자신은 풍상을 겪어도 모습이 변하지 않으며 비슬을 받기 원하지 않는다는 시, 수양처사(대나무)는 봄날이 자랑할 것이 안 된다는 시, 동리은일(국화)은 비바람이 부니 다시는 머리 위에 꽃을 못 꽂겠다는 시를 짓는다. 이 시를 들은 여왕(모란)이 조정에는 당신들 같은 처사가 필요하다면서 이들을 조정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나 이들은 그 제안을 한사코 거절한다.</p>
<p></p>	<p>이부인(오얏꽃)은 자신은 이전에 남편의 사랑을 받았으나 이는 모두 옛날 일이라는 내용의 시를 읊었으며, 반희(복숭아꽃)는 남편에게 간언을 했으나 오히려 냉대만 받은 지난 날을 회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시를 읊는다. 여왕은 이부인과 반희에게 금전두를 하사했다.</p>
<p>연회가 끝난 후 최현미는 꽃들이 바람에 날려갈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된다. 아조(석류)는 최현미를 만난 것을 반가워하며 그에게 마당에 일월오성기를 세워 달라고 부탁한다. 최현미가 아조(석류)가 알려준 대로 마당에 일월오성기를 세우니 그 다음부터는 꽃들이 바람의 피해를 받지 않게 되었다.</p>	<p>연회가 파하고 궁전을 나서자 안빙은 어떤 미인(출당화)과 마주쳤다. 그녀는 자신은 양귀비 시절에 오해를 사서 조정에서 쫓겨났으나 여왕(모란)이 그 오해를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출당화와와의 대화가 끝나고 안빙은 꿈에서 깨어났다. 향기가 안빙을 감싸고 있었다. 정원을 보니 모란 한 떨기가 비바람에 잎이 모두 떨어져 있었고 다른 식물들은 모두 자신의 자리에 있었다. 이에 안빙은 간밤의 연회가 꽃들과 관련된 것임을 깨닫고 다시는 정원을 돌아보지 않았다.</p>

우선 <최현미>의 화원세계의 구도는 꽃들의 생사여탈권을 권 비바람의 여신 봉십팔이가 있으며 대다수의 꽃들은 봉십팔이에게 잘 보여서 죽음을 면하려 하고, 아조(석류)가 봉십팔이에 반항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안병몽유록>에도 꽃들과 비바람 사이의 긴장 구도가 있다는 점이다. <안병몽유록>에서는 식물들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지니며 물을 가지고 식물들을 살릴 수도 있는 존재인 봄의 신 동황(東皇)이 있고, 비바람에 꽃이 지는 것을 아쉬워하는 인물군(모란, 금실옷 입은 기녀, 깃털옷 입은 기녀 등)이 있으며 봄과 비바람에 초탈한 태도를 보이는 인물군(조래선생, 수양처사, 동리은일, 반희)이 있다.

<최현미>의 봉십팔이는 신화 속 인물 풍이에서 모티프를 가져와 만들어진 것이다. 풍이는 하백(河伯)의 다른 이름인데, 『회남자』에서는 풍이가 ‘우레를 수레로 삼고 구름 무지개를 육두마로 삼아 (중략) 회오리바람을 붙잡고 돌개바람을 끌어안고 하늘 높이 올라가 산천을 두루 지난다’¹⁶⁾고 한다. <최현미>의 비바람의 여신의 이름이 ‘봉십팔이’가 된 것은 중국어에서 ‘풍(風)’과 ‘봉(封)’의 소리가 비슷하기에 언어유희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안병몽유록> 속 동황은 작중에서 ‘천둥 수레에 바람으로 멩예를 매어 달 놀이 꽃놀이를 즐기며 놀기만 했다’¹⁷⁾고 한다. 이로써 <안병몽유록>의 동황은 온화한 봄의 신 이미지뿐만 아니라 꽃들을 죽일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안병몽유록> 속 ‘비바람’과 ‘남편’과의 유비관계에 대해서이다. 반희(복숭아꽃)의 일화는 실존 인물 반첩여의 일화를 차용한 것이다. 한나라 성제가 부인 반첩여에게 같이 수레를 타자고 권유했는데, 반첩여는 여자를 곁에 두는 것은 말세의 임금이 하는 것이라며 이를 사양했다. 이 일로 인해 반첩여는 한나라 성제의 노여움을 받았다. <안병몽유록> 속 반희의

16) 유안 지음, 이석명 옮김, 『회남자』, 소명출판, 2010, 55쪽.

17) 신광환 지음, 박현순 옮김, 『기재기이』, 범우, 2008, 32쪽.

시에는 ‘아침 내내 비바람 쳐 백량대에 간헐했다’는 언급이 있으며, 그는 자신의 남편에게 냉대를 받았던 것을 ‘終風且暴’으로 표현하기도 했다.¹⁸⁾ ‘終風且暴’은 『시경』 패풍의 〈중풍〉 시의 구절로, ‘바람 몰아치듯 종일 사납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반희의 대목에서는 모란의 남편 동황이 비바람을 의미한다는 구도가 반복되었다.

조선에서는 임금을 향한 신하의 충심을 남편을 향한 아내의 애정의 정서로 비유하여 표현하는 ‘연군지정’의 작법이 있었다. 여왕(모란)의 남편은 동황이며, 이부인(오얏꽃)의 남편은 한 무제이며, 상술한 반희의 남편은 한 성제이다. 남편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왕인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작중의 여성인물들이 자신의 남편에 대한 시를 짓는 것은 단지 애상적인 시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군지정’의 장 안에서 발화되는 정치적 발언으로 읽을 여지가 다분하다. 여성 인물들이 자신이 남편과 떨어진 슬픔을 토로하는 것은 벼슬길에서 멀어져 한거하는 작자의 처지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최현미〉의 봉십팔이와 〈안빙몽유록〉의 동황의 역할이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최현미〉의 봉십팔이는 꽃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위협적인 존재로만 그려졌지만 〈안빙몽유록〉의 봄의 신 동황은 ‘비바람’의 성질과 ‘봄’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란은 금실옷 입은 기녀(버드나무)와 깃털옷 입은 기녀(버들꽃)가 비바람에 꽃이 지고 봄이 가는 것을 아쉬워하는 노래를 부르자 그 노래를 멈추게 하며 〈남훈곡〉을 연주하게 했다. 〈남훈곡〉은 순임금이 지었다고 알려진

18) 이부인과 반희가 좌정할 때 모란이 ‘옛날에 이부인은 총애를 받았지만 반희는 못 받았음’을 언급하자 반희가 시경 패풍의 구절을 인용하며 ‘그것은 다만 남편이 변덕스럽고 난폭하기 때문(第以終風且暴之故爾)’이며 조정에서는 벼슬이 높은 사람이 우선(朝廷莫如爵)이니 자신이 이부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대답했다. ‘조정에서는 벼슬이 높은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은 ‘맹자’ 〈공손추〉의 구절(朝廷莫如爵 鄉黨莫如齒)을 인용한 것이다.

곡조로, “따사로운 남풍이여! 우리 백성 불만을 풀어 줄 만하여라.[南風之薰兮 可以解吾民之慍兮]”를 가사로 한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모란은 동황이 따뜻한 ‘남풍’을 통해 꽃을 살리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식물들과 동황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려고 했다.

정리하자면, <최현미>에서 꽃들이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좌장 봉십팔이에 대한 이부와 비판의 태도를 나타냈다면 <안빙몽유록>의 식물들은 좌장 모란보다는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동황에 대한 태도를 나타냈다. 그런데 <안빙몽유록>에서는 연군지정의 작법 때문에 비바람, 봄, 왕, 남편의 이미지가 혼재되었다. 따라서 여성 식물들이 자신의 남편에 대한 애정시를 짓는 것도 그 지향이 동황 또는 왕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안빙몽유록>의 구도를 살피기 위해서는 꽃들 사이의 갈등 관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연회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거대한 존재감을 가진 동황과의 관계도 고려되어야 한다.

3. 회원왕국의 긍정적 성격

1) 임금의 은혜를 상징하는 봄날

앞선 장에서 필자는 신광한이 봄의 신 동황을 임금에 비유한다는 것을 설명했다. 『기재집』을 통해서 그의 평소의 비유체계를 더 확실히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次禱使六韻>에서는 ‘영화로이 사는 것과 애통하게 죽는 것은 모두 임금의 은혜이라 함께 황명을 짊어지니 정원에 봄날이 왔다네 [榮生哀死皆恩澤 共荷皇明圃一春]¹⁹⁾’의 구절이 있다.

19) 신광한, <次禱使六韻>, 『기재집』 8.

『기재집』은 고전번역원 데이터베이스(<https://db.itkc.or.kr/>)를 통해 열람했다.

〈肅拜後作〉

生還今日白頭臣。 살아서 오늘을 만난 백발의 신하
 紫禁煙花正繞春。 궁에 핀 봄꽃엔 봄기운 가득하네
 鑾署玉堂驚入眼。 서당과 옥당은 사람의 눈을 놀라게 하니
 淚流翻訝夢中身。 눈물 흘리다 홀연 꿈속에 있는지 의심하네.²⁰⁾

〈復用前韻。奉酬李虛谷〉 중

(전략)

空有丹心懸魏闕 헛되이 붉은 마음 대궐에 걸렸는데
 更無清夢到銀臺. 더 이상 은대에 가는 꿈도 꾸지 않네
 誰知白首元亨老. 누가 백발의 원형리 노인이
 曾把天香滿袖回. 모란 향을 소매 가득 품고 돌아왔음을 알았으랴

(중략)

窓下清風輸上世. 창가의 맑은 바람은 저 옛날로 실어 보내고
 睡鄉長日當春臺. 꿈나라에서는 긴긴 날 춘대에 올랐네
 同時同道居同里. 같은 날 같은 길 같은 마을
 有酒相同定幾回. 술도 이와 같아 몇 번이나 돌았나
 花裏留罇又不來. 꽃 속에 남은 술동이 남았거늘 다시 오지 않으니
 銀鞍傍險更能催. 은안장 험한 길을 재촉할 수 있으리²¹⁾

(후략)

〈肅拜後作〉과 〈復用前韻。奉酬李虛谷〉에서도 봄이 임금이 있는 궁궐과 유비되고 있다. 특히 〈復用前韻。奉酬李虛谷〉에서 신광한은 모란 향(天香)을 임금의 총애와 연관시켰다. 신광한은 돌아오지 않는 지난날을 꿈속에서나마 다시 만나려고 했으며, 꽃 속에서의 환영잔치에서는 술이 몇 번이고 돌았다고 한다. 신광한의 평소 비유법을 생각해 봤을 때 〈안빙몽유

20) 신광한, 〈肅拜後作〉, 『기재집』 4.

21) 신광한, 〈復用前韻。奉酬李虛谷〉, 『기재집』 3.

록)의 술을 동반한 봄날의 연회 공간은 사치와 향락의 공간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꿀벌, 나비, 버드나무 등의 성격에 대해서이다.

〈題忠勳府所藏燕山倖婢綠樹家沒入牡丹屏十帖〉 중

好事東君效技奇。호사가인 동군이 기이한 재주를 일으키니
一春文物盛威儀。봄이 와 문물들이 성대히 위의를 갖추는구나
黃蜂粉蝶還多債。꿀벌과 나비에게 빚진 게 많아
自擬生逢郁郁時。살아서 찬란한 시절 만났는가 보다²²⁾

〈家貧。遣妾。戲書〉 중

雖同司馬相如病。비록 사마상여와 같은 병²³⁾을 앓고 있다고 해도
不及香山居士年。백거이의 나이에는 미치지 못했네.
恩愛未衰頭白後。임금의 은혜는 백발이 된 후에도 쇠하지 않으니
春心尙在柳枝邊。봄의 마음은 버드나무 가지 곁에 아직도 남아 있네.²⁴⁾

꿀벌과 나비, 버드나무 등도 역시 향락을 위해 동원된 타락한 기생이 아니라 임금의 은혜를 유비하는 ‘찬란한 봄날’과 동화되어서, 그 의미를 강조하는 존재로 생각되고 있다. 이처럼 봄은 이상적인 시간이었기 때문에 신광환은 가는 봄을 아쉬워하는 시를 지었다.

〈曉雨。階上晚桃一樹。餘花落盡。嘆而口號一絕〉
如寄生涯白髮翁。여관에 깃든 듯한 백발옹의 생애
三春看過却匆匆。봄이 가는 것이 너무도 빠르다네

22) 신광환, 〈題忠勳府所藏燕山倖婢綠樹家沒入牡丹屏十帖〉, 『기재집』 9.

23) 중국 전한의 문인 사마상여는 당뇨에 걸렸다고 해서 관직에서 물러났다고 한다.

24) 신광환, 〈家貧。遣妾。戲書〉, 『기재집』 2.

風搖雨打今朝恨. 바람이 흔들고 비가 때려 오늘 아침의 한이 되었으니
送盡桃花滿樹紅. 온 나무를 붉게 하던 복숭아꽃을 모두 보내는구나²⁵⁾

〈和感春賦〉 중

哀時歲之不爲我留兮	세월이 나를 위해 기다려주지 않음을 슬퍼 하니
春又冉冉其將之	봄날은 또 하염없이 가버리려 하네
美人既與余成言曰不期以爲期	미인께서 내게 말씀하기를, 기약하지 않는 것이 기약이라고 하셨지
鳳凰翼而曾逝兮恐佳媒之中替	봉황은 날갯짓해 이미 떠나갔으니 중매가 어긋날까 두렵네 ²⁶⁾

〈안빙몽유록〉의 여성으로 의인화된 식물들이 ‘과거회상적’이며 ‘애상적’인 시를 읊은 것은 신광한이 평소 지었던 시의 내용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안빙몽유록〉에서 봄을 상징하는 식물들은 신광한이 극복해야 할 유혹자나 훈구세력이라기보다는 신광한의 자아의 반영으로 읽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2) 이부인과 반희의 절개

다음은 이부인과 반희에 대해서이다. 이들은 〈안빙몽유록〉의 인물을 다루는 거의 모든 논문에서 부정적인 인물로 해석되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들이 한 임금(모란)만을 사랑하겠다는 아침의 시를 불렀으며 그 아침의 결과로 모란에게 금전두를 하사받았다고 했다.²⁷⁾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이 글에서 비바람과 왕, 여성인물들의 남편이 비슷한 충위를 이루고 있다

25) 신광한, 〈曉雨。階上晚桃一樹。餘花落盡。嘆而口號一絕〉, 『기재별집』 1.

26) 신광한, 〈和感春賦〉, 『기재집』 1.

27) 신해진(1997), 앞의 논문, 237쪽.

고 할 때 화왕 모란은 식물들의 대표자일 뿐 각각의 꽃들이 충성을 바쳐야 할 대상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이부인과 반희의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제께서 봄나들이 건강궁을 나설 때
그 때엔 이 몸이 은총 으뜸이었지.
마음은 청춘인데 연지분 다 지워지고
한 가락 추풍사 영영 잊지 못하겠네.²⁸⁾

이부인(오얏꽃)은 선제의 은총을 받은 지난날과 그렇지 않은 오늘날을 비교하고 있다. 이부인의 시에는 지난날을 회상하며 그리워하는 정서는 있으나 선제에게 사랑을 갈구하고 있지 않아 이부를 하는 시라고는 해석되기 어렵다. 다음은 반희(복숭아꽃)의 시이다.

영화롭던 지난날 수레타기 사양했는데
아침 내내 비바람 쳐 백랑대에 갇히었네.
천 년 뒤에 마음 안 이는 오직 이백이라
화장한 조비연을 가련히 여겼다네.²⁹⁾

앞서 언급했듯 반희의 모델이 된 반첩여에게는 한나라 성제가 같이 수레를 타자고 제안했을 때, 여자를 곁에 두는 것은 말세의 임금이 하는 일이라며 사양했다는 고사가 있다. 이후 반첩여는 한나라 성제의 노여움을 샀으며, 한 성제의 총애는 대신 중국 역사상 유명한 미녀인 조비연이 가져갔다고 한다. 반희 시의 내용은, 자신은 비록 남편인 왕에게 직간을 하느라 왕의

28) 신광한 지음, 박헌순 옮김(2008), 위의 책 44쪽.

29) 원문의 ‘解憐飛燕倚新粧’은 이백이 화장에 의지해서 총애를 독차지했던 한나라 조비연을 조소하기 위한 시구라고 한다. 신광한 지음, 박헌순 옮김(2008), 위의 책 45쪽.

분노인 비바람을 종일토록 맞고 있었으나, 자신은 가식으로 아침을 떠는 조비연처럼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 이 시는 자신이 비록 그 당시에는 고초를 당했지만 후대에 이백 같은 사람은 자신의 고결함을 알아 줄 것이라는 희망 역시 담고 있다. 반첩여의 시에서는 왕에게 직간을 서슴 없이 하는 태도가 보인다.

이전 연구에서는 조래선생, 수양처사, 동리은일이 아니라 이부인과 반희가 금전두를 받은 것에서 화원왕국에 권도가 횡행함을 알 수 있다는 해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런데 신광한의 평소 비유체계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이부인과 반희가 금전두를 받은 것은 단지 꽃의 생물학적 특성에 다른 필연적 결과에 불과할 수 있다. 〈안빙몽유록〉과 『기재집』에는 ‘머리에 꽃이 핀다’는 구절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예컨대 〈안빙몽유록〉에는 동리은일이 ‘해마다 비바람만 치고 있으니 다시는 머리 가득 꽃을 못 꺾겠구나’라는 시를 읊었으며, 『기재집』의 〈次韻。戲書宗印禪師詩軸〉³⁰⁾에서는 신광한이 평소에 친분이 있던 승려를 만나서 아름다운 재회를 하니 다시 봄이 와 머리 위에 꽃이 피었다는 비유를 쓰기도 한다. 그런데 신광한은 머리에 꽃은 꽃을 비단에 비유하기도 했다. 〈次錦湖演韻〉에서 그는 어떤 꽃을 보고 ‘금 비단 포대기(金錢絡繹襟)’를 들었으며 ‘머리 끝에 황색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梢頭着爾黃)’라고 묘사했다.³¹⁾ 〈詠洛陽紅二絕〉에서는 모란을 묘사할 때 ‘붉은 작약은 가지 끝에 흐드러져 비단과 분간이 되지 않네(紅藥繁梢錦不分)’의 표현을 쓰기도 했다.³²⁾ 즉 신광한의 평소의 비유체계에서 머리에 꽃을 꺾는다는 것은 뇌물이 아닌, 순수한 기쁨을 나타내는 것

30) 신광한, 〈次韻。戲書宗印禪師詩軸〉, 『기재집』 6.

이 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 剛被閑情未易裁。何人挽我此留哉。罇中酒滿春還住。頭上花繁蝶亦來。檀板一飛歌窈窕。袈裟同墜舞徘徊。百年奇會真非偶。異日追思夢一回。

31) 신광한, 〈次錦湖演韻〉, 『기재집』 9.

32) 신광한, 〈詠洛陽紅二絕〉, 『기재집』 9.

이며 여왕이 이부인과 반희에게 금전두를 하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저 오얏꽃과 복숭아꽃에 봄에 성대히 꽃을 피우는 생물학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3) 예의와 법도에 따른 자리 배치

다음은 화원왕국의 예의에 대해서이다. <안빙몽유록>에는 화원왕국이 ‘목덕(木德)과 화덕(火德)을 섞어 써서, 무릇 위외와 제도에 청색과 적색을 숭상³³⁾’했다고 한다. 그의 문집 『기재집』의 <화이소경(和離騷經)>에서는 그중 화덕이 어떤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구절이 있다. <화이소경>에서 火神의 가르침은 예악, 제도, 겸손, 사양, 예절 등이며 천상의 음악인 균천곡은 염제의 위외가 성대함을 나타내는 장치이다.

謁炎帝於明都兮煥爛燁其文章◎	南方에서 염제를 뵈오니 그 예악과 제도가 눈부시다.
而辭遜揖讓之有節兮咸遵蹈夫典常◎	겸손하고 사양하는 것이 절도가 있어 규칙에 모두 맞아
該火正之世守兮豈斯禮之無徵◎	火神의 가르침이 있으니 어찌 예절의 징험이 없겠는가?
紛左右之不可選兮奏鈞天以樂予◎	좌우가 분주하여 고를 수 없으니 균천 곡조로서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³⁴⁾

다음은 화원왕국의 예의가 무너졌다는 논란을 낳고 있는 좌정 대목이다.

33) 신광한 지음, 박헌순 옮김(2008), 위의 책 16쪽.

34) 신광한, <和離騷經>, 『기재집』 1. <和離騷經>, <和愁陽春賦>, <和悲清秋賦>, <和感春賦>, <和感春賦>의 해석은 김성수, 「신광한(申光漢)의 사부문학(辭賦文學) - 실지류(失志類)-」, 한문교육 17,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6, 377~419.를 참고하여 필요한 부분을 변형하였음.

(가) 세 사람이 통성명을 하고는 각각 차례로 들어오는데, 왕은 용모를 가다듬고 기다렸다. 그 한 사람은 푸른 수염에 키가 크고 기개가 드높았다. 한 사람은 곧고 준엄하며 절조가 쇠락했다. 한 사람은 누런 관을 쓰고 수수한 옷을 입었는데, 덕의 향기가 얼굴에 가득하였다. 세 사람은 들어와서 길게 읊만 하고 절은 아니하고 말하기를, “저희들은 성품이 속되고 게을러서 예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왕은 더욱 자신을 낮추어 그들을 예우하였다.³⁵⁾

(나) 조래가 말하기를, “옥비는 수양(대나무) 다음 자리에 앉는 게 좋겠습니다.” 하니 옥비(매화)가 용모를 고치고 말하기를, “예에 ‘남녀는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다’ 하였거늘, 하물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는단 말입니까?”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웁은 말씀입니다. 옥비는 소속이 형의 향렬이고 또한 우리나라에 오신 손님이니 우선 내 다음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다. 주씨는 성지를 다스리는 성주이니 옥비 다음에 앉으십시오.” 하였다. 두 사람이 겸손히 사양하였으나 되지 않자 드디어 자리를 조금 뒤쪽으로 당겨서 비켜 앉았다.³⁶⁾

(가)에서 조래선생, 수양처사, 동리은일은 “저희들은 성품이 속되고 게을러서 예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했고 이에 왕은 더욱 자신을 낮추어 그들을 대우했다고 한다. (나)에서 조래선생이 ‘옥비는 수양 다음 자리에 앉는 게 좋겠다’고 한 것은 수직적인 위계질서 때문이 아닌, 같은 ‘세한삼우’로서의 동질성 때문이다. 이에 옥비는 ‘남녀는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다’는 예의를 가져오며³⁷⁾ 자신과 처사들은 예에 맞게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자리를 정하는 과정에서 옥비와 주씨는 자신의 자리를 ‘겸손히 사양하다가 되지 않자 자리를 조금 뒤쪽으로 당겨서 비켜 앉았다.

35) 신광한 지음, 박헌순 옮김(2008), 위의 책 22쪽.

36) 신광한 지음, 박헌순 옮김(2008), 위의 책 24~25쪽.

37) 이는 『예기(禮記)』의 〈내칙(內則)〉에서 유래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자리를 정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인 것을 문제삼았는데, 좌정을 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라고 해서 그것이 공정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꽃들이 지키고 있는 예의는 유교 경전인 『예기』에서 비롯한 것이며 처사군 인물들은 스스로 자신이 예의를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래선생이 옥비(매화)가 수양(대나무) 다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저 ‘세한삼우’로서의 동질성 때문이므로, 이러한 지엽적 동질성을 통해 조래선생에게 모란에게 없는, 완벽한 법도를 찾을 수는 없다. 모란, 옥비, 주씨의 겸손한 태도를 고려했을 때 여성인물군과 남성인물군이 아예 소통 불가능하다는 것에도 동의하기 힘들다. 여성인물들의 배려가 나타나고 있으며, 한쪽이 원형리에서 은거중인 신광한의 연군의 정을 나타내고 한쪽이 처사의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본질적인 소통의 단절이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최현미〉에는 연회를 시작하기 전의 상황을 ‘그들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문밖에서 봉씨 댁의 이모가 왔다고 알려왔다. 앉아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기뻐하며 나가서 이모를 맞이했다.’³⁸⁾로 묘사하고 있다. 〈최현미〉와 〈안병몽유록〉에서 좌정하는 대목이 강조된 것은 같으나 그 묘사되는 방식과 분위기는 판이하게 다른데, 만일 〈안병몽유록〉이 『태평광기』의 〈최현미〉의 영향을 받아 쓰인 글이라면 좌정 부분의 어수선함을 강조한 〈최현미〉를 의식해서 예에 맞게 자리를 배치하도록 의식적인 글쓰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외에 선행 연구들에서 이야기의 주제의식을 전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출당화의 하소연도 〈최현미〉와의 비교를 통해 그 의미를 재고해 볼 수 있다. 이는 〈최현미〉의, 연회가 끝난 후 한 인물이 좌장을 비판하는 말

38) 李昉 모음, 김장환, 이민숙 外 옮김, 『태평광기』 17, 學古房, 2004, 503~504쪽.

을 하고 꿈에서 깨어나는 이야기의 구조를 충실히 답습한 결과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작중에서 출당화는 모란이 아니라 모란 이전의 화왕이었던 양귀비에게 내침을 당했다고 한다. 즉 출당화 축출 사건은 모란과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모란이 자신의 역량을 완벽 이상으로 발휘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는 내용이었다. 신광한이 일부러 양귀비라는 새로운 인물을 대화 속에 등장시킨 이유는 〈최현미〉와 같은 구도로 각몽 장면을 처리하되 좌장인 모란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비교적 낮추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4. 신광한의 분신으로서의 모란

〈詠洛陽紅二絕〉

百花春後掃餘芳。 온갖 꽃은 봄 지난 후 남은 향기 사라지는데
獨有嫣紅盡意香。 유독 붉은 모란만이 실컷 향기를 발하네
至貴自然難品第。 지극히 귀해서 품제를 정하기 힘들지만
牡丹何得擅爲王。 모란은 어떻게 왕 자리를 차지했나.
紅藥繁梢錦不分。 붉은 꽃잎은 가지가 많아 비단과 구분이 되지 않고
輕香時和午風薰。 가벼운 향은 때때로 남쪽 훈풍에 화답하네
洛陽擬見周家盛。 낙양에서 주나라의 성세를 보려 하노라
應帶當年郁郁文。 그때의 찬란한 문명 응당 띠고 있으리³⁹⁾

위 시에서는 모란을 통한 신광한의 평소 비유법을 엿볼 수 있다. 위 시에서 모란은 상징체계를 흔드는 일개 아녀자보다는 유가적 상징의 높은 이념인 주나라 왕실의 예의를 상징한다. 특히 이 시에서 신광한은 ‘紅藥’을 모란의 붉은 꽃잎을 설명하는 단어로 썼는데, 그는 작약에 대해 읊는 다른 시

39) 신광한, 〈詠洛陽紅二絕〉, 『기재집』 9.

(〈家有芍藥。紅白二色〉)에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너를 천하다고 하지만 나는 너에게 ‘단심(丹心)’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내용의 시를 쓰기도 했다.

다음은 신광한의 문집의 제일 처음을 차지하는 시들(〈和離騷經〉, 〈和愁陽春賦〉, 〈和悲清秋賦〉, 〈和感春賦〉)에서 발견되는 모란 여왕과의 유사성에 대해서이다.

〈화감춘부(和感春賦)〉 중

及晦巖之未迫兮依日月而爲光
揚荷衣之芬馥兮鳴玉佩之琅璫

가로막힌 산자락에서 일월의 빛을 받아
연꽃으로 지은 옷 향을 뿜내니 꽤 소
리 낭랑하다.

顧余飾之信芳兮奚獨俾余以可忘
酌金罇而遠慰兮期不至乎永傷

내 꾸밈새 꽃다운이 어찌 나를 잊게 하라
금잔에 술을 따라 마음을 달래어보나
(님께서) 기약하고는 오지 않아 슬프네⁴⁰⁾

〈등루부(登樓賦)〉 중

登茲樓於千載兮悵獨倚以淹留

이 누각에 오른 지 천 년, 홀로 오래도
록 기대 있음을 슬퍼하는 것은
어지러운 세상을 만담도, 지금까지 도
를 넘어서도 아니요

非所遭之紛濁兮亦踰紀以迄今

維余飾之不昧兮孰衆芳之能任

오로지 나의 차림새만이 어둡지 않으니
어떤 방초가 이 일을 맡을 수 있으리오
향초를 몸에 꽃고 부용을 소매에 두르고,
내가 이 묘지를 떠남을 만민하니 해는
이미 서산에 기울었구나.⁴¹⁾

紉蘭蕙以爲佩兮綴芙蓉以爲襟

耿吾離此之暮兮白日隱於西峯

40) 신광한, 〈和感春賦〉, 『기재집』 1.

41) 신광한, 〈登樓賦〉, 『기재집』 1.

위의 시들에서는 화자가 모란 여왕처럼 자신을 꾸미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굴원과 같은 남성 화자가 자신을 꾸미는 것은 유희행위보다는 수양행위로 이해되었다.

〈등루부〉의 화자는 〈안빙몽유록〉의 주씨가 부용성을 오래도록 지키는 것이나 반희가 임금의 총애를 받지 못해서 백량대에 갇히는 것처럼 누각에서 오랫동안 ‘님’을 기다리고 있다. 모란 여왕이 1년에 10일밖에 동황을 만나지 못하는 고립의 정서도 위와 비슷한 맥락에 놓여 있다. 〈등루부〉의 화자는 다른 방초들은 긴 시간동안 자기수양을 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어떤 방초라야 그 일을 맡을 수 있을 것인가? 앞서 인용한 〈詠洛陽紅二絕〉에서는 ‘온갖 꽃은 봄 지난 후 남은 향기 사라지는데 유독 붉은 모란만이 흡족히 향기롭네’라는 구절이 있다. 즉 못 방초와 모란 사이의 핵심적인 차이는 향기에 있었던 것이다. 〈次錦湖演韻〉에서는 황색 꽃에서 비온 후에 나는 향기가 ‘덕향(德香)’이라는 구절⁴²⁾이 있다. 즉 신광한에게 향기란 ‘덕’과 관계되는 것이다.

〈和離騷經〉 중

藹仁友之中萃兮盡四方之祗祗	나라의 못 어진 이를 벗삼고, 사방에 공경을 다하면
若泉火之達然兮類金木之從化	물과 불이 소통하고, 금과 목이 따르리.
紛前後與左右兮雜蕙芷與椒離	사방을 두루 돌아 갖은香草 모아다가
日相率而交修兮御中和而至茲	날마다 서로 이끌고 끊임없이 수양하여 중화(中和)를 다스려 여기까지 왔다네 ⁴³⁾

〈화이소경〉의 화자는 나라의 못 어진 이를 벗삼고 사방에 공경을 다하

42) 年年唯正色。處處是明粧。 養得清和氣。終教尚德香。 기재집 9.

43) 신광한, 〈和離騷經〉, 『기재집』 1.

며 소통과 수양을 중시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화자의 모습은 <안빙몽유록>의 여왕의 지향과 일치한다.

<和離騷經> 중

塊獨守此中圃兮矢撫壯而棄穢	이 안뜰을 홀로 지키면서 장년을 쓴살 같이 보내고 더러움을 없이하노라.
草何芳之不致兮芳何隱而不索	풀은 어째서 향기가 닿지 않고 방초는 어찌 숨어서 찾을 수 없는가
竊悲秋雨之爛死兮又嫉春颺之狂妬	가을비에 스러짐을 슬퍼하고, 봄바람 의 시새움을 미워하노라
覽察陰陽之密機兮增余懷之隱隱	음양의 숨은 기틀을 바라보니 나의 회 포가 그윽해지네
蕙華亦有所零落兮熟後時而獨立	혜초 꽃도 떨어지니 어느 누가 훗날에 도 시들지 않으랴 ⁴⁴⁾

<안빙몽유록>의 모란 여왕은 처음에는 열일곱에서 열여덟 사이의 나이로 보였다가 연회가 끝날 무렵이 되면 나이를 먹어, 조정에서 일할 제안을 거절하는 수양처사와 동리은일에게 ‘두 분은 내가 너무 늙었다고 해서 거절하시는 것입니까?’라는 물음을 묻는다. 모란이 마지막에 꽃잎이 떨어지는 것은 노화에 따른 죽음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모란 여왕이 화원왕국을 지키며 장년을 쓴살같이 보낸 것 또한 <화이소경>의 화자의 모습과 일치한다.

<화이소경>의 화자 역시 <안빙몽유록>의 여성 인물들처럼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모든 꽃이 시든다는 숙명적 인식이 나타나는 대목(혜초 꽃도 떨어지니 어느 누가 훗날에도 시들지 않으랴)이다. <화이소경>의 후반부에는 ‘주인의 무사함을 기뻐하며 이곳에서 기다리며 기꺼이 길이 잠적하여 죽음을 기다리

44) 신광한, 위의 글.

자[欣主人之無恙兮。敵中宇以相待。甘潛寂而永靖兮。與老死而爲期。]의 구절이 있다.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모란이 죽은 것은 징치를 당하거나 권력이 헛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굴원이나 〈화이소경〉의 화자와 같은 ‘주인공’으로서의 숙명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신광한이 안빙이 다시는 화원 세계를 들여다보지 않도록 만든 것은, 자신의 분신인 모란이 결국 동황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시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모란의 비가역적 죽음은 작자 신광한이 정치적 실각을 당해 결국 조정에 진출하지 못하는 것과 유비된다.

5. 나가며

지금까지 〈안빙몽유록〉 속 화원왕국과 모란의 성격을 〈최현미〉 및 『기재집』 등 인접 텍스트들을 통해 살펴 보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여성인물과 남성인물 사이의 갈등에서 주제의식을 찾으려는 경향이 강했으나, 본고에서는 문면에 전면화되지는 않지만 이야기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봄의 신 동황에 주목하여 〈안빙몽유록〉의 왕과 신하의 대치구도는 모란과 처사들이 아니라 비바람과 식물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안빙몽유록〉에서는 봄, 비바람, 임금, 남편의 이미지가 비슷한 층위에서 반복된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를 통해 여성인물이 애정시를 지으며 과거회상을 하는 것은 임금을 향한 충성심이 ‘연군지정’의 형식을 통해 비유적으로 발화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 모란의 화원왕국은 주로 극복해야 하는 부정적 대상으로서 성애적이고 적대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기재집』에 나타난 신광한의 평소의 비유체계를 참고해 보았을 때 ‘봄’은 임금의 은혜가 구현된 공간이었으며 이에 따라 신광한도 봄이 가는 것을 슬퍼하는 시를 지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부인과 반희가 지은 시는 모란만을 사랑하겠다는 이부의 내용이 아닌 남편의 사랑을 받지 않아도 살아가겠다는 내용으로서 연군지정의 형식을 통해 이를 읽으면 그 내용이 남성 처사들의 ‘세한심’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모란의 상별이 정당하지 않다는 증거로 활용된 ‘금전두’는 『기재집』을 통해서 볼 때 가지에 흐드러지게 핀 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봄에 화려한 꽃이 피지 않는 식물들은 생물학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이었다. 신광한은 평소 모란을 주나라의 성대한 문물과 관련시키고 붉은 색을 충성심과 관련시켰다. 이러한 그의 가치관은 <안빙몽유록>에도 반영되어, 그는 화원왕국의 예의가 성하다는 것을 최대한 부각시키려고 했다.

신광한은 『기재집』 9권, 『기재별집』 7권, 『기재문집』 3권의 거질을 남겼다. 이러한 거질 중에 가장 첫머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화이소경>이다. 이는 굴원의 <이소경>에 화답한 시로서 님과 만나지 못한 화자가 동서 남북의 신들을 찾아가서 덕을 수양하고 마지막에는 굴원처럼 목숨을 끊을 것을 고민하는 내용이다. <안빙몽유록>의 모란은 <화이소경>의 화자처럼 향초로 자신을 꾸미고 나라의 어진 이를 벗삼고 사방에 공경을 다하며 장년이 다 지나도록 자기수양을 하다가 숙명적인 죽음을 맞았다. 신광한은 향초와 현실을 교차시킨 일련의 세계관 위에서 벼슬길에서 물러나 수양하는 마음가짐을 표현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 마음이란 설령 왕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더라도 자신만의 세계를 가꾸어나가는 것으로서, 화왕 모란과 여성-신하 인물과 남성-처사 인물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이다.

참고문헌

- 신광한, 『기재집』, 『기재별집』 <https://db.itkc.or.kr/>
- 신광한 지음, 박현순 옮김, 『기재기이』, 범우, 2008, 1~258쪽.
- 李昉 모음, 김장환, 이민숙 外 옮김, 『태평광기』 17, 學古房, 2004, 1~752쪽.
- 유안 지음, 이석명 옮김, 『회남자』, 소명출판, 2010, 1~659쪽.
- 김미령, 『(몽유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 환상성 연구』, 문학들, 2010, 1~238쪽.
- 강민경, 『『태평광기(太平廣記)』의 국내 유입과 그 영향-유선시(遊仙詩)를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66, 동방한문학회, 2016, 309~343쪽.
- 권도경, 『16세기『기재기이』의 전기소설사적 의의 연구: 현실성의 확대와 주체의 의지강화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6, 한국고전연구학회, 2000, 33~58쪽.
- 김현화, 「〈안빙몽유록〉 구성 방식의 특질과 소설적 기능」, 『어문연구』 79, 어문연구학회, 2014, 141~167쪽.
- 김형석, 「夢遊錄類 小說 作家의 現實認識 研究 : 朝鮮 中基 作品을 中心으로」, 충남대학교 석사논문, 2003, 1~81쪽.
- 문범두, 「〈안빙몽유록〉 주체고」, 『어문학』 80, 한국어외문학, 2003, 239~264쪽.
- 신범순, 「은자의 정원에 나타난 상징과 꿈의 의미 -〈안빙몽유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2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0, 75~107쪽.
- 신상필, 『『기재기이(企齋記異)』의 성격과 위상』, 『민족문학사연구』 24, 민족문학사학회, 2004, 188~215쪽.
- 신태수, 『『기재기이』의 환상성과 교환 가능성의 수용 방향』, 『고소설연구』 17, 한국고소설학회, 2004, 133~164쪽.
- 신해진, 「〈안빙몽유록(安憑夢遊錄)〉의 주제의식 고찰: 작가의 의식성향 및 정치적 입장과 관련하여」, 『韓國漢文學研究』 20, 한국한문학회, 1997, 211~243쪽.
- 양혜승, 「〈안빙몽유록〉(安憑夢遊錄)에 나타난 도가적 사유와 의미지향」, 『문학과종교』 24, 한국문학과종교학회, 2019, 71~95쪽.
- 엄기영, 『『企齋記異』의 창작방법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7, 1~141쪽.
- 유기옥, 「申光漢의 『企齋記異』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논문, 1990, 1~168쪽.
- 유정일, 『『企齋記異』의 傳奇小說史의 特性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2002, 1~196쪽.

윤채근, 「『기재기이 (企齋記異)』 : 우의의 소설미학」, 『韓國漢文學研究』 24, 한국한문학회, 1999, 159~187쪽.

최승범, 「〈안빙몽유록〉에 대하여」, 『國語文學』 24, 全北大學校 國語國文學會, 1984, 125~145쪽.

최재우, 「『企齋記異』의 장르적 특성과 형상화 의미」,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7, 1~187쪽.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eony and the Garden of Flowers in “Anbingmongyurok”

Nam, Hye-kyoung

This study examines the theme of “Anbingmongyurok” (安憑夢遊錄) by comparing similar texts such as Shin Kwanghan’s collection of writings, “Gijaejip” (企齋集), and “Choi Hyunmi” (崔玄微) in *Taepyeonggwanggi* (太平廣記). Existing discussions have often described the flower garden kingdom as a corrupted space, and have stated that there was a confrontation between the female and male groups. However, if there is a confrontational structure in this work, there is room for it to be thought of as being between plants and rainstorm, as in 〈Choi Hyun-mi〉 of *Taepyeonggwanggi*. This is because there are many poems written by anthropomorphic plants related to rainstorm, as in 〈Choi Hyun-mi〉.

In “Anbingmongyurok,” Shin Kwang-han mixes the images of Donghwang, Rainstorm, King, and husband. Thus, the female character’s melancholic sentiment toward her husband may also be understood as political rhetoric.

In Shin Kwanghan’s collection of writings, “Gijaejip,” the spring day symbolizes the grace of the king, not a space of corruption. In addition, like the female characters of the flower garden kingdom, he left numerous poems that expressed regret over the fall of flowers and the aging of his body. The speaker of “Hwaisogyong” (和離騷經) decorated himself like a peony and kept his manners and laws, but died after a long time without gaining the king’s trust. In conclusion, the flower garden kingdom and the Peony Queen were not objects to be overcome, but rather objects that reflected Shin Kwang-han’s inner self.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Shin Kwang-han’s “Gijaejip,” which has been neglected until now in the study of “Anbingmongyurok,”

served as principal reference material. It is expected that the author's values will reveal the truth of the flower garden kingdom full of metaphors and symbols.

Key Words

“Gijaejip” (企齋集) “Choi Hyunmi” (崔玄微), “Anbingmongyurok” (安憑夢遊錄), Shin Kwanghan (申光漢), flower garden kingdom, peony, *Taepyeonggwanggi* (太平廣記)

논문투고일 : 2022.04.12.
심사완료일 : 2022.04.30.
게재확정일 : 2022.05.02.